

홍천실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17년 11월 (제42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자월스님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배우며 가르치고, 봉사하는 즐거움에 빠지다

홍천 삼락회 (三樂會)



삼락회는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 등 3가지를 즐기는 교원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홍천지역 삼락회는 회원 25명으로 구성됐고, 집행부는 정희섭(71·사진) 회장, 최재철(81)·김명규(84) 감사, 이상진(72) 사무국장이 활동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80세로 최고령자는 박삼영(94·화촌면 거주) 회원이다.

삼락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퇴직교원 평생교육 요원화,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학교 특별 활동 명예교사 지원)과 마을 평생교육봉사센터(학부모교육 및 고충상담, 학생인성지도 상담)운영, 가정교육 운동 전개(가정교육 요원 양성, 학부모 연수, 가정교육 독본 제작), 교육정책 연구 및 모니터링(월례교육 삼락포럼, 교육시책 여론조사, 세미나 개최, 청소년 교육용 도서 발행), 청소년 선도와 문화 시민운동 전개(불우 청소년 결연지도, 충효예절교실 운영, 청소년선도 캠페인), 한국사도 대상 운영(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우수 교육 사례집 발간, 특별 공로상제), 효행 선행자 표창 사례 발표(효행 및 선행 학생 발굴 표창), 사이버 가정교육 아카데미(예절지도, 바른 자녀 교육관 확립, 건전 가정 풍토 조성,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



홍천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개장식이 지난 10월 18일 홍천읍 태학리 100세 건강센터에서 열렸다.

평균나이 80세...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헌 교육자 출신답게 탈선 청소년 문제 해결에 앞장

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홍천지역 삼락회는 평생교육 활동 강좌와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선도와 수련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연수지원 강화, 모범교육자 발굴과 유공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봉사단체를 꿈꾸고 있다.

정 회장은 "탈선청소년 문제는 가장 시급한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사회구성원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교원을 역임한 삼락회원들이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갖고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홍천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40년 교직생활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왕성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또 홍천향교 수석홍보장으로 향교에서 청소년 예절과 인성교육을 맡고 있다. 성균관 유교신문 홍천주재기자이자 사진작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세구 기자

*홍천실버신문에서 홍천관내의 다양한 정보 및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천실버신문은 55세 이상 어르신 기자단이 만들어 가는 신문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제공받고 싶은 분은 구독신청 바랍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으로 구독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홍천실버신문은 개인 및 단체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일자 2,000부가 발송되고 있으니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광고료는 공익성 유무 확인 후 홍천실버신문 광고료 규정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 홍천군노인복지관 11월 행사일정

일시	장소	내용
2017.11.09.~10 10:00~	홍천군노인복지관	김장나눔 행사
2017.11.17.(금) 15:00~	홍천문화예술회관	홍천군 시니어예술단 창단식 및 정기공연
2017.11.21.(화) 10:00~	크리스탈웨딩홀	노인소득보장증진사업 평가회의
2017.11.22.(수) 10:00~	크리스탈웨딩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회의
2017.11.28.(화) 17:00~	크리스탈웨딩홀	너브나래인의 날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03 - 귀농·귀촌인 이야기

04 - 경로당 탐방

05 - 다문화가정이야기

06 - 유적지/전설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08 - 기자칼럼

- 독자기고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전체근육 사용해 기혈 순환 활발 자신감 회복

지친 인생사 수술경험 서로 위로하면서 힐링
자기 스스로의 치료법 “마음의 주름살 펴진다”



◇ 홍천군노인복지관 동작치료반

“누구나 쉽게 동작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이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인 동작치료반(반장 김광현·66) 반원들은 동작치료를 이 같은 표현으로 요약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2시 50분) 노인복지관 본관 2층 노리터에서 이선아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김 반장은 동작치료반의 청일점으로 협착증으로 병원에서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다 동작치료 운동을

시작한 후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한다. 동작치료는 평소 안 쓰던 근육과 전체근육을 골고루 사용해 기혈의 순환이 활발해져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장미자(68) 씨는 “이 운동은 신체적 구조에 맞춘 유연한 스트레칭과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인생사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술까지 받은 경험들을 토로함으로써 서로 연민의 정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다보면 힐링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또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새롭고 신선한 것으로 채울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하며 내가 아픈 만큼 남도 아프다는 것을 공감할 때 거기서 상대적 위안을 받는다고 했다.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나면 속은 뽕뽕리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단다. 그런 후에는 이제껏 버티고 살아왔으니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자신감이 든다고 했다. 세월의 흔적인 얼굴의 주름은 펴 수 없지만 마음의 주름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면서 활짝 웃었다. 이 강사는 “동작치료는 자기 스스로 하는 치료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서 불편해합니다. 몸 전체를 쓰게 해서 기혈을 순환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가슴 속 답답함은 소리를 지르게 해서 막힌 곳을 뚫어요. 막히고 고이면 썩듯이 서로 소통하면 작은 우주인 몸과 마음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이 강사는 요가와 종합 건강 체조를 아우른 10년 경력의 베테랑 동작치료 지도사이다.

조정철 기자



윤석례 어르신, 전국민요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홍천군노인복지관 시니어예술단 민요반 소속인 윤석례(70) 어르신이 지난 9월 30일 경기 안산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5회 전국 경서도 민요 경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락만년, 강원도 학습동아리대회서 우수상 수상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색소폰 동아리인 장락만년이 지난 10월 14일 인제에서 열린 강원도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장락만년은 박영근 어르신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귀농·귀촌인 이야기(11) 홍천배 듀오 가족농원 김준옥 씨

서울깍쟁이, 귀농 5년 만에 농촌전도사로 변했다

홍천군 남면 신대리 홍천배 듀오(Duo) 가족농원 대표인 귀농 5년째인 여성 농업인인 김준옥(58) 씨다. 그녀는 홍천군귀농귀촌인연합회 부회장을 맡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다.

귀농 전까지 그녀는 서울깍쟁이었다.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나 경기여고를 졸업한 재원으로 대학졸업 후 무역회사 한국대리점을 운영했다. 그 시절 섬유계통의 무역회사 듀오(Duo)의 해외영업 사원인 박민길(60) 씨를 만나 결혼하는 등 서울에서만 생활했지만 조용한 농촌생활을 좋아해 사업을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인 홍천 신대리로 귀농했다. 시골생활은 편의시설이 없고 택배를 보내려면 양덕원까지 나가야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시골생활의 불편은 소탈하고 시원스러운 성격으로 극복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남편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남편 친구 집 근처로 귀농한 후 홍천군귀농귀촌학교 4기 교육을 받는 등 새로운 농촌생활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그러던 중 배 농장을 하고 있던 남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2000여 평에 배나무 400그루되는 배 농장을 인수받아 2015년부터 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그때 농장이름을 듀오(Duo) 가족농원으로 정했다. 그 후 2년 동안은 소득이 없었으나 올해는 풍년이 들어 수입이 괜찮다고 했다. 홍천지역의 배 농사가 소규모여서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상품을 출하할 물량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소농(적지만 강한농업) 전략으로 유통망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배나무를 분양하는 사업도 펼치고

다. 가을철 직접 와서 수확해 가도 되지만 배 농장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부부가 배를 수확한 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다.

또 농촌의 단조로운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어 내는 삶을 살기 위해 귀농귀촌한 6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홍천 컬러팜 웨딩사업을 시작했다. 홍천 컬러팜 웨딩사업은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에서 여는 소규모 결혼으로 관광두레주민사업체로 이름 지었다. 스몰웨딩은 최근 젊은 층에서 관심을 끌고 있어 유망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홍천 배 농장과 오미자 농장 등을 결혼식장으로 꾸미고,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의미와 보람을 찾고 있다. 지난 8월 첫 번째 웨딩으로 홍천전통주조 앞마당에서 열렸다고 한다.

그녀는 “귀농귀촌을 위해선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낭만적으로 막연히 귀농귀촌하면 실패한다”며 “귀농귀촌 후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한 현지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서울로 현재 귀농생활이 힘들어 돌아갈 것 이냐는 질문에 “갈 곳이 없다”며 “귀농귀촌의 성공 비결은 돌아갈 집을 두지 않고 오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순화 기자



◇ 김준옥(58) 씨는 남편의 고향인 홍천으로 5년 전 귀농했다.

홍천군 귀농귀촌인연합회 부회장 예비귀농인 멘토 활동
2015년부터 2000평 400그루 관리 올해 풍년 수입 짹짹
배나무분양 스몰웨딩 사업 전개 “낭만적 귀농은 실패한다”

있다. 배나무 분양은 서울 등 수도권 가족들이 배 농장에서 분양받은 배나무를 직접 가꿔 가을철에 수확하는 방식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배 농장을 방문해 배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직접 체험하고, 배 농장 텃밭에 심은 상추를 뜯고 고추를 따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 묵어가도록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배나무 한 그루당 분양가는 15만 원이라고 한

다. 가을철 직접 와서 수확해 가도 되지만 배 농장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부부가 배를 수확한 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다.

경로당 탐방시리즈 (41) 서면 길곡리경로당

“함께 식사하고 노래교실 요가배우고 사는데 신나요”



◇ 서면 길곡리 경로당(회장 정을묵·73·뒷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사물놀이 수준급 각종 공연, 마을 청소하고 어려운 가정 도와 장수마을 선정 경로당에 영상교육장 마련 회원 만족도 높아

홍천군 서면 길곡리경로당은 길곡리 마을회관인 작은 건물을 2011년 3월 새 건물로 준공한 후 사용하고 있다.

정재흥(83)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정을묵(73) 회장과 이근오(69) 사무장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자 35명, 여자 38명 등 73명이 활동하고 있다. 평균나이는 78세이다.

경로당 회원들은 주2회씩 주변지역 청소와 마을입구부터 꽃밭 가꾸

기를 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을 찾아 도움을 주고 있다.

길곡리는 장수마을로 선정돼 3년에 걸쳐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각종 지원금으로 목운동기구 등 각종 운동기구를 구입해 경로당 회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어 새농촌기업으로 선정돼 강원대 교수들로부터 연간 5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로당에 영상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되어 회원들

의 만족도가 높다.

또 홍천군노인회에서 강사를 초빙해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천군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회원들은 노래교실과 요가프로그램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노래교실과 요가프로그램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종대(58) 이장의 지도 아래 사물놀이를 하고 있다. 현재 회원들의 사물놀

이 실력이 수준급이어서 서면지역 각종행사시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경로당은 농번기와는 상관없이 연중 개방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최고령자 박분임(96) 씨와 정주희(94) 씨는 길곡리 경로당의 산증인으로 회원들이 신뢰를 하며 잘 따르고 있다. 남자 6명, 여자 9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 회장은 “넓은 경로당에 에어컨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여성회원을 위한 에어로빅프로그램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 대소사는 정 회장과 이영숙(61) 부녀회장, 정백순(60) 새마을지도자, 정종대 이장, 이근오 사무장의 기여도가 많다고 한다.

안태수 기자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정을묵	73	농업
운영위원	이석연	75	농업
운영위원	정근영	69	농업
운영위원	남궁득	74	주부
운영위원	김주남	72	주부
감사	이기연	70	농업
감사	서진호	70	농업

☎ 033-434-4633

고시조

마음이 어리석으니 - 서경덕 조선중기 유학자(1489~1546)

마음이 어리석으니 /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에 / 어느 입 오리 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 행여 권가 하노라

·만중운산(萬重雲山): 첩첩이 겹쳐 구름이 덮인 산

·해설: 구름 겹겹이 쌓인 깊은 산중에 어느 입이 오겠는가마는 화자는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 행여 입이 온 것인가 설렌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니 스산한 바람에 나뭇잎만 구를 뿐. 아아 어리석은 나!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임의 소리로 착각할 만큼 입을 애뜻하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조정철 기자

사자성어

長毋相忘(장무상망)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서로 잊지 말자’ 이 말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인장으로 찍힌, 고맙네! 내 결코 잊지 않음세! 우리서로 오래도록 잊지 마세! 의 뜻입니다.

외로울 때 힘이 되어 줄 사람 세상을 살면서 오래도록 서로 잊지 못할 장무상망의 그 사람이 있는지 이 계절에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조정철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40) 홍천군 남면 동 티한(26) 씨

남편과 싸운적 없고 자녀교육열 높은 현모양처



◇ 동 티한(26) 씨가 자녀들과 함께 있다.

시집은 직후 다문화센터서 교육, 자격증 3개·한국국적 취득
친정부모도 홍천서 살아 든든... 홍천읍내서 카페 운영이 꿈

“가끔씩 말을 잘못 알아듣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시집과 홍천군 남면 시동리에 살고 있는 동 티한(26) 씨는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면 피곤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산다.”고 했다.

그녀는 베트남의 하이퐁에서 아버지 동 반키엣(53) 씨와 어머니 팜 티항(53) 씨의 1남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다. 그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구두 만드는 공장에 2년, 옷 만드는 회사에 2년을 다녔다.

2010년 1월 5일 동네 언니의 소개로 남편 강수희(47) 씨를 만났다. 마음이 착한사람처럼 보였고 어머니와 오빠도 마음에 들어 했다. 만난 지 3일 만에 하이퐁에서 약혼식을 하고, 그해 7월 7일 한국에 와서 9월 4일 시동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제주도로 2박3일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남편은 아버지 강덕형 씨와 어머니 김전식(79) 씨의 1남 1녀 중 맏이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8년 전에 별세했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

다. 남편은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창원 오토바이 회사에 다녔고, 부산에서 건축업을 하는 등 객지생활을 하다가 10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와 축사 짓는 건축일을 병행하고 있다.

그녀는 시집 온지 한 달 만에 남편과 함께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았다. 2년 동안 열심히 다니 한국어와 요리 등을 배웠고 재활용공예 지도사자격증 3급을 취득했다. 음식 만들기를 좋아했고 인터넷과 시어머니에게 물어 한국어와 한국음식을 배워 지금은 제사음식을 혼자 만들어 차린다.

처음엔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했다. 남의 밭을 임차해서 가지와 단호박을 심어 출하했는데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현재는 집 부근에 먹을 채소류만 조금 심고 남편은 건축업으로 바꿨다. 그녀는 양덕원에 있는 해장국 식당에 1년간 다니다 올해 5월부터 중화요리 식당으로 옮겨 일하고 있다.

2011년 10월 아들 태신(7)을 낳고 이어 딸 연주(5)를 낳았다. 아들 낳을 때부터 친정어머니가 한

국에 와서 3년간 외손자를 키우며 농사일을 도와줬다. 2014년 친정오빠가 아들을 낳자 고향에 돌아가서 손자를 키워주다 지난 5월 다시 한국으로 와서 현재 대명콘도에서 일하고, 휴일은 딸네 집에서 농사를 거들어 주고 있다. 친정아버지도 4년 전부터 전남 미역공장과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하다 지난 9월 24일 그녀 집으로 와서 농사일을 거들어 주고 있다.

남편이 일 나가고 없을 때 아들이 폐렴 등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을 업고 운행 횟수가 많지 않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둘째 임신 3개월 때 홍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2013년 5월 한번에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득했다. 그리고 1년 후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춘천, 서울 등지를 자유롭게 운행하며 불일을 보고 직장을 다닌다. 또 2014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15년 1월 16일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그녀는 셋째를 낳고 싶어도 교육이 걱정돼 주저하고 있다. 아들 딸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로 교육 습득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질까봐 걱정하고 있다. 아들은 태권도 학원에 다니며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과외를 받고 있다.

시간이 있을 때는 남편과 동해안 나들이를 하거나 베트남에서 온 동향인들을 만나 닭백숙도 해먹고 못했던 얘기도 하지만 직장관계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고 애들이 컸지만 남편과 한 번도 다투는 걸 못 봤다.”고 며느리를 자랑했다.

그녀는 “한국은 병원시설이 잘되어 있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문화시설이 잘되어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고 했다.

처음 한국에 와서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 김과 백김치 불고기만 먹었지만 지금은 매운 한국음식을 다 잘 먹고 특히 얼큰한 감자탕을 좋아한다고 했다.

2016년 9월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커피바리스타자격증 2급을 취득했다. 제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못 배우고 있다.

그녀는 “여건이 허락되면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홍천읍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이옥희 기자



유적지 탐방(21)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옥개석 구성 등 고려 후기 석탑양식 사료적 가치 으뜸



◇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1962년 1월 21일 보물 제79호로 지정된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2.45m의 삼층 석탑이다. 기단 면석 이하가 땅속에 묻혀 있었고, 3층 옥개석이 없어진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이전 및 보수가 이루어져 정확한 원형을 알 수 없다.

기단면석에는 모서리 기둥과 버팀 기둥이 돌을새김으로 조각되어 있고, 갑석의 상면에는 3단의 받침을 마련해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1층과 2층의 탑신석에도 양쪽 모서리에 기둥을 조각 하였고, 옥개석의 1층과 2층에는 4단, 3층에는 3단의 받침을 두었다.

옥개석 낙수면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게 조성되었으며, 처마 네 귀퉁이는 살짝 들려 올라가 날렵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3층 옥개석의 상면에는 상륜부를 구성했던 방형의 좌주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석탑은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 기단부에 비해 탑신부가 유난히 작아 조형미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나, 탑신석과 옥개석의 구성 및 형태를 통해 고려 후기 석탑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당시의 사료를 연구하는데 가치가 크다.

홍천 초등학교 뒤편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발견, 1950년 옛 홍천교 육청 정원으로 옮겼다가 1957년 현재의 위치인 홍천미술관 앞으로 옮겨왔다.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것도 좋겠지만 원형보존을 위해서 원위치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영권 기자

전설(21) 홍천읍 갈마곡리 닥 바위(닭바위)

홍수에 떠내려 와 바위에 안착한 닭 구해줘 붙여진 마을



◇ 홍천 닭바위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옛날 홍천군 서석면 미약골에 남궁경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미약골은 산이 좋고 기후가 서늘하고 토질이 좋아 옥수수와 감자 등 각종 채소가 잘 되었다. 또 가축사육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 남궁경은 닭 200마리와 돼지 100마리를 사육했다. 또 마을주민인 이기전은 삼계탕용 닭 500수와 돼지 50마리를, 김화중은 닭 150수와 돼지 50마리

를, 최광성은 염소 90마리를, 정화용은 닭 200수와 염소 70마리를 사육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축이 잘되기 위하여 불화가 늘 끊이지 않았다.

1925년 큰 태풍이 발생했다. 산사태로 소나무와 잡목이 물에 떠내려가고 가축이 물에 익사해 아웅다웅하던 동네 주민들 사이는 불화가 없어지고 화목하게 되었다.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 오던 수탉 한 마리가 홍천읍 갈마곡리 산 밑 바위에 걸려 안착했다. 뱀이 바위에 안착한 닭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동네주민 최옥화씨가 뱀을 잡고 닭을 구출하여 주었다. 다음날 새벽에 수탉이 울었다. 동네주민은 닭이 영물이라 닭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

다. 그 후 동네는 일 년에 정월달만 되면 동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제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다. 동네 기원제 희생 제물로 닭을 바쳐 제사를 지냈다.

그 해 동네의 농사는 풍년이 들었고 아웅다웅하던 불화는 없어지고 화목한 마을이 되었다.

닭이 울던 바위는 지금의 홍천 아산병원과 홍천소방서 중간지점에 있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 바위는 흔적이 없고 병원과 소방서가 자리하고 있고 최옥화는 아들 셋이 출세했고, 갈마곡리는 일명 닥 바위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광명 기자

우리 직장 칭찬 릴레이 (42)

홍천농업고등학교

국내최고의 첨단농업후계자 양성에 자부심

홍천농업고등학교(교장 민병하)는 1952년 개교해 올해 2월 제63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총 졸업생은 8114명이다. 현재 60여 명의 교직원이 우리나라 미래 농업을 선도할 고등 농업 인력이 될 300여 명의 학생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미래 농업선도고등학교(전 국 3개 고교)로 선정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교육청, 홍천군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모든 학생들이 첨단 농업 후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함양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짓고, 농업교육관련 시설의 신·증축에 사용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 연수를 통해 선진화된 농업의 이론이나 실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운영자금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기숙사비, 수업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각종 체험학습비

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홍천농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농업관련 창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있으며 현장 및 해외 인턴십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졸업 후 농업관련 창업이나 승계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 등 우수한 농업관련대학에 진학해 더 고차원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다.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다.

민병하 교장이 신승관 주무관(52)을 칭찬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통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이 많은데 그 중에 백미는 ‘홍천농고 달걀’이다. 신 주무관은 이 명품 달걀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 달걀이 생산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실험실습을 통하여 연수를 함은 물론, 이것의 생산을 위해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다. 이 분야 달인의 경지에 오른 신 주무관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

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달걀을 생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 지난 9월에는 ‘KBS 6시 내고향’에서 ‘홍천농고 청정양계장을 찾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이다.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거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 실습 처나 취업처가 있다면 천 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녀와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소신과 열정이 넘친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진로나 진

학에 대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선생님으로 인하여 홍천농고는 취업률에서도 타 학교를 리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홍 선생님은 신혜진(40) 선생님을 칭찬했다. 농업에 관심이 많은 특수학생들도 홍천농고에 재학하고 있는데, 학과 공부와 전공 실험실습은 일반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을 케어해주는 전담선생님이 필요하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였

을 경우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바, 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신혜진 선생님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내 자식 돌보듯 가르치면서 그들의 앞날을 원만히 열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과 배려와 가르침 덕분에 특수반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복한 인생을 엮어 가는데 더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적인 교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로 선정된 홍천농고가 우리 관내 특성화 명문 고등학교로서 강원도 농업인 후계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서 우리 지역이 농업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모든 교직원들은 서로를 칭찬하며 다짐했다.

최정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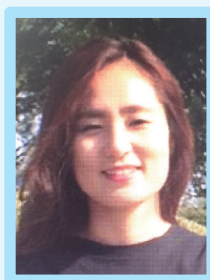
신승관 주무관



이루리 선생님



홍순영 선생님



신혜진 선생님

신승관 주무관 - 고품질 명품인 ‘홍천농고 달걀’ 안정적 생산에 열정

이루리 선생님 - 학과개편 실험실 신·증축 학생교육 등 빈틈없이 수행

홍순영 선생님 - 학생 취업처 있으면 천 리 길도 방문하는 열정의 교사

신혜진 선생님 - 특수반학생에 헌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교육 산증인

신 주무관은 이루리(37) 선생님을 칭찬했다. 홍천농고가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부터 불철주야 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분이 이루리 선생님이다. 하나의 학과 개편으로 인한 업무도 만만찮은데 학교 전체를 새롭게 개편한다는 것은 말처럼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기숙사 신축에서부터 각종 실험·실습실의 신·증축, 개축사업까지 도맡으면서 이 업무에 중추적인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에도 한 치의 빈틈없이 수행해 나가는 고수의 능력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선생님은 홍순영(39) 선생님을 칭찬했다. 학생들의 첫 직장이자 사회에 첫 발을 잘 디디게 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분이 홍순영 선생님이다. 오로지 학생들의 진로를 잘 살펴봐 주겠다는 열정 하나로 뭉쳐진 철의 여인이다. 사회에 첫 직장인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기자칼럼



박 세 구

홍천실버신문 기자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졸업까지 반장, 실장, 학생회장, 각종 서클, 동아리회장 등 수많은 선거를 우리는 경험해 왔다.

옛날에는 마을 동장도 선거로 뽑은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온통 선거 속에 있다. 마을이장, 통장, 도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등이 투표로 선출된다. 농수축협 조합장, 이사, 대

의원, 사회단체장, 자생단체장과 수많은 봉사단체, 개인적인 친목, 임의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뽑힌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 때면 온갖 흑색 모략이 일어나고, 요즘은 인터넷상의 막가파식 허위 사실 유포와 상대방 비방 글 올리기 등 정말로 어지럽다. 네 편 내 편 가르기로 살벌한 선거 분위기는 우리사회의 근절돼야 할 퇴폐

중 22%가 65세 이상인 노인인구로 접어든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노인회장 선거는 노인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

홍천군노인회장은 임기 4년 동안 무보수인 순수 봉사 직으로 그 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격자를 찾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꼭 선거를 통해야만 노인회장을 뽑아야 하는가? 거금을 기탁하

대에서 겨우 연명하는 노인들을 위해 그런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노인회장을 떠들썩하게 꼭 선거를 치러야만 하는지 왠지 씁쓸하기까지 하다.

4년 전 홍천군노인회장 선거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동점자가 나오는 등 치열하게 전개되는 선거를 경험한바 있다. 홍천군노인회장 선거는 합의로 추대된 후보자를 박수 속에 옹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지난해 10월 열렸던 홍천향교 선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지난해 홍천향교는 전교, 유도회

지부장, 감찰위원장, 감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다. 여러 후보자가 나왔으나 회원들의 열띤 논의 속에 어렵게 합의해 각각 단일후보를 추대했다. 선거일이 축제와 잔치 분위기 속에 박수갈채로 5명의 단일후보를 옹립하는 것을 보고 선비다움을 느꼈다.

홍천군노인회장 꼭 선거로 선출해야 하나

문화의 극단이기도 하다.

물론 다양한 경륜과 운영방법 등을 비교 판단할 수 있어 적임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11월에는 홍천군노인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현재 홍천은 전체인구 7만 명

고 홍천지역 200개가 넘는 경로당을 방문해야하고, 2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

위험한 길거리에서 유모차에 폐지를 줍고 돈 없고 늙은 몸으로 병들고 가난한 노인들, 복지 사각지

독자기고



김 주 철 (78)

홍천읍 희망로

삶의 유형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100세 시대에 60살 전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인생의 절반 밖에 안 살았는데 남은 여생 절반은 무엇으로 생활할까.

재취업을 하자니 옛날 지식은 낡은 지식으로 또 옛날 취득한 자격증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으니 재취업이 쉽지 않다. 어릴 적 부모님이 농사짓는 것을 도우며 자란 사람으로 물려받은 농지가 있어 농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농사도 옛날 부모님시대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해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시

대에 기술도 지식도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해 결국 농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2년 만에 끝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의식주는 해결되고 경제활동은 그만하고 취미 생활로 여생을 여유롭게 생활하고자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 유교에서는 벼슬을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학생이라 부르니 필적이 없어 수기로 모든 것을 쓰던 시절 창피도 당하고 설움도 많이 받은 생각이나 학생으로 돌아가 글씨를

그러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건강하고 학생시절 육상 선수였던 아내가 발목에 병이 생긴 것이다. 2013년부터 아과 관절염으로만 생각하고 치료했으나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검사를 한 결과 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와 잘못하면 발목을 절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이 캄캄했다. 1개월 동안 진찰하고 검사를 한 후에 시술했다. 다행히 절단은 면하고 회복되었으며, 방사선 치료를 60일 받기 위해 병원 근

경EM(유용미생물)활용사업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아내가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거동을 할 수 있어 부부동반 도시락배달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정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나는 서예와 사군자반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노래교실에 참여했다. 우리부부는 잉꼬부부로 선정되어 노인복지관 개관기념 및 어버이날 행사 때 표창까지 받았고, 홍천실버신문에 보도됐다. 아내는 내가 직장에서 장관과 도지사상 등을 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한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며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노인복지관의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에 더욱 더 열심히 참여하여 여유 있는 생활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갈 것이며, 이 세상을 때에는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장관상보다 더 좋은 잉꼬부부상

배우겠다고 홍천문화원 한문서예반에서 글씨를 배우다보니 서예글씨가 예술이었다. 예술에는 무지했지만 글씨를 배우겠다고 시작한 것이 예술지식도 알게 되어 적성에 맞았다. 때마침 홍천군노인복지관이 건립되고 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복지관으로 옮겨 서예와 사군자를 배우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처 숙소를 정해 치료를 받았다. 결과가 좋아 50일 만에 치료가 끝나고 3개월마다 재발검사를 하다 지금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친척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의사 또한 기적이라며 격려해주고 고맙다.

2014년~2015년은 힘들었다. 아내는 2015년 8월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 나는 다시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일자리 담당이 친환